

세계화와 대학의 경쟁력 담론에 대한 단상

김 은 실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



1980년대 후반에 미국에 갔을 때, 대학원에는 논문을 써 놓고도 제출하지 않은 채 10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소위 10년차 박사 후보생들이 꽤 있었다. 모든 것을 빨리빨리 끝내어 다음 단계로 진입해야 하고, 각각의 연령이나 집단들에게는 그들이 해야 하는 주어진 과제와 역할들이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성원이라는 교육을 받아온 한국 사람에게 논문은 다 써 놓고도 수업조교나 연구조교를 하면서 학교에 남아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있는 인간들로 보인다. 그들은 낭비되는 사회적 자원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생각될 수

있다.

당시 1980년대 후반의 미국 사회는 여전히 불황기였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못 잡던 시기였다. 9년차, 10년차 학생들은 대학에 취직하려고 여러 대학에 지원해보기는 했지만 취직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의 여럿은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들도 별로 없고 문화적인 환경도 빈약한 중서부의 조그만 대학에 취직하기보다는 조교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이나 교수들이 있는 대학의 커뮤니티에 자의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논문을 제출하여 학교를

나가는 것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논문을 책으로 출판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도 하고, 학위논문의 장들을 독립적인 논문으로 만들어 학회지에 출판하면서 학위논문 제출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물론 이들은 미래와 현재의 불확실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었고, 자신이 논문을 빨리 제출하여 취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가축 때문이었다고 어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취직은 해야만 하는 긴박한 현실에 직면해 있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일상생활을 해결하는 대학 커뮤니티를 거의 목격하지 못했던 나에게 각 대학마다 존재하는 집단으로서의 대학원 커뮤니티는 대학사회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했다. 즉,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대학원생 집단의 존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대학 내에 대학원생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위해서 대학이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들과, 또 대학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커뮤니티를 참아내는 미국 사회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여유에 대해 생각했었다. 그러면서 미국 대학이 갖는 경쟁력, 학자들의 경쟁력은 개인들이 받은 교육의 내용과 성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개인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투여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원에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졸업을 유보하면서 학교에 엉겨붙어 있을 만큼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이나 사회가 이러한 인간들을 참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물론 우리 사회에도 학교에 '적'을 두고 학교에 오지 않거나 졸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두 경우에 '적을 둔다'의 실질적인 의미와 기능은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가 그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미국의 대학을 비롯하여 서구의 많은 대학들은 우리나라의 대학을 논할 때 중요한 비교모델로 사용된다. 그리고 한국 대학의 문제점을 드러내거나 한국의 대학교수, 대학생들을 비난할 때 소위 서구의 대학들은 그 준거가 된다. 물론 한국의 대학사회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대학이나 우리보다 선진한 혹은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서구의 대학과 우리의 대학들을 비교할 때 무엇이 비교되어야 하고, 경쟁력의 비교우위가 갖는 사회적·문화적 의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그리고 우리 대학들의 문제제기와 논의가 충분한가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설은 세계화이고 경쟁력이다. 대

학사회 역시 이러한 지배담론의 지배를 받고 있고, 각 대학마다 세계화의 정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의 경쟁력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대학에서 산출되는 지표화된 업적들의 수치를 통해 비교되고, 그것들이 경쟁의 목표로 설정된다. 그리고 비슷한 수치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수치화된 경쟁력의 우열에 대해 대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수치가 갖는 맥락적·현실적 의미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하는 경쟁력 담론은 우리 사회의 획일적인 가치체계와 권력의 행사방식과 맞물려 모든 부문에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경쟁력에 관한 동일한 결과가 산출될 것을 강요한다. 들쭉날쭉하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부문간의 경쟁력 양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계화와 경쟁력의 담론에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세계화의 질서체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매개됨이 없이 우리 모두가 세계와 직접 매개되는 보편적이고 탈공간적인 주체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이미 우리의 삶은 시장화된 세계현실의 한복판에 놓여있고, 개인에게는 이러한 시장에 편입될 수 있는 경쟁력만이 문제가 된다는 현실규정이 세계화와 경쟁력 담

론에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인 한 우리가 갖는 세계적인 경쟁력은 이미 세계시장에 나와 있는 한국 국적의 여러 분야의 스타들이 그랬듯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는 전제가 있는 듯하다. 대중매체를 통해 유포되는 경쟁력의 세계화가 일등하는 지하철 운전자, 일등하는 농부, 일등하는 주부들이듯이 우리의 경쟁력 담론은 일등하는 대학생, 일등하는 대학원생, 일등하는 교수가 우리가 지향하는 경쟁력이고 세계화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IMF 시대라고 규정되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위기의 담론으로 가득하다. 여기에는 세계화와 경쟁력이라는 담론 이외에 애국심이라는 담론이 또 하나 첨가되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가와 대중매체는, 외환위기에서 시작된 IMF 사태는 세계화된 세계에서는 문화나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합리적인 시장경제의 질서 원리가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경제적인 문제이니 거품을 빼고 긴축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위기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민족·국가라는 정서공동체를 지켜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러한 지배담론은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시장원리 그리고 우리의 고유한 민족·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합리적인 시장질서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개인이

라는 언설들이 어떠한 관련을 맺는지, 그 구체적인 관계성이 사회의 각 부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나 설명이 없이 당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IMF에서 돈을 빌려오면서 국가와 경제주체들이 우리 사회의 거품과 구조조정 불가피성을 사회화, 정치화시키기 이전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부실함과 유예된 부도의 문제들을 매일 일상적으로 체험하고 있었다. IMF개입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던 부실함의 문제들을 더 이상 은폐하거나, 그냥 끌고갈 수 없게 우리 사회의 문제가 온 세상에 드러나버렸다는 데서 그 사회적·정치적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IMF사태는 단순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비합리성, 부실성을 드러내는 사건만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가치체제와 권력의 행사방식, 자율적인 사회의 부재가 드러난 사회문화적 중후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IMF사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20세기 말의 세계현실과 국가와 사회의 각 부문들 그리고 개인들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사고와 각성을 요구한다는 데서 더욱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사건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긴축과 재구조화라는 IMF시대의 요구 앞에서 대학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학에 요구되는 IMF시대의 긴축과 재구조화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대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위

상을 가져야 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계화는 여전히 현실적인 규정력을 갖는 국가의 범주 내에서, 그리고 국가와 혹은 국가 내의 어떤 집단들과는 마찰을 일으키면서 다층적으로 교차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지'에 위치한다. 세계나 시장은 항상 우리 밖에 고정된 질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다. 대학은 이미 만들어진 노동시장에 하나의 상품으로 개인을 교육해내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시장을 평가하고, 통제하고, 창출할 수 있는 개인들을 교육하고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의 경쟁력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경쟁력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생산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당장 눈앞에서 가시화되는 효과로 연결되기 어렵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나 사회, 그리고 대학당국이 의도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경쟁력 있는 개인들을 만들기 위한 광범한 인문적 교양에 대한 투자, 기존학문의 분과 범주들 밖에서 혹은 분과들의 경계 사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이름의 학문 분과들, 학생들을 학교에 붙여있게 만드는 대학 커뮤니티의 형성

에 대한 투자 등은 기존의 시장질서 내의 경쟁력 논의만으로는 풀 수 없는 것들이다. 대학의 건축과 구조조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경쟁력은 여전히 우선적인 기준이 될 것이지만, '무엇이 경쟁력인가'에 대한 대학 내의 담론과 논의가 좀 더 공개적으로 본격화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

김은실/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인류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인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 연세대, 서울대 강사 등을 지냈고, 현재는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민족담론과 여성: 문화, 권력, 주체에 관한 비판적 읽기", "출산문화와 여성", "여성의 건강관리와 육체 이미지의 소비문화"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대학 교육

**좋은 독자는
좋은 책을 만든다고 합니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줄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우)150-74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보자료부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783-3891, 780-7042
팩스 : 780-8311)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대학담론 (25장 안팎의 수상)
- 나의 수업
(30장 안팎의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의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밖에서 본 대학
(12장 안팎의 대학 외부인사 수상)

■ 참고사항

- 투고를 원하시는 경우, 원고의 내용과 목차 등을 간략히 적어 보내주시면 편집기획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필요한 경우, 편집자문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